

## 어떤 역병이나 재앙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성경말씀: 시91:1-16

지난 몇 주 동안 우한 폐렴의 공포, 우리 성도들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

시91편, 어려움을 당할 때 늘 우리가 읽는 유명한 시편, 저자는 모른다. 90편의 저자가 모세, 어쩌면!

그러나 다윗의 시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2). 다윗보다 더 많이 고통당한 사람도 많지 않다.

그런데 여기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울무(3), 화살(5), 사자, 독사, 용(13).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의미를 모르니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안전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오늘은 < >,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설명하는 시간

1-4절: 시편의 주제, 성도들의 안전, 5-10: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안전의 의미

11-13: 천사들까지 동원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14-16: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고통 중에 도움이 되심을 약속하신다.

Bible.org, Bob Deffinbaugh 목사 델러스 신학교

### 성도들의 안전(1-4)

성도들의 안전 맞지만 그 안전을 누가 주시는가가 핵심이다.

1.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엘리온, 1, 9, 창14:18-20), 왕, 신 등 무엇보다 높으신 분  
전능자(엘샤다이):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창17:1 등),

주(2, 9), 여호와, 언약을 맺는 분

2. 시편 기자 자신의 고백

3. 하나님의 보존 능력, 울무와 역병에서

4. 깃털로 보호, 3-4절 종합하면 어미 새가 자기 새끼를 품에 보호하는 것 의미

어미 품속에 있는 아기 새: 부드러운 사랑, 부드러운 하나님

그러나 그를 공격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용사, 방패를 들고 보호함

울무: 걸리기까지 희생되는 새는 그 존재를 모름, 해로운 역병: 치명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는 재앙이든 안 보이는 재앙이든, 치명적인 모든 것에서 성도를 새끼처럼 품속에 보존해 주신다.

### 안전의 의미(5-10)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의 성도는 안전하다. 왜? 하나님의 날개 밑에 거하므로(4), 그 결과

1. 무서워하지 않는다(5-6). 낮과 밤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 24시간 내내

2. 쓰러지지 않는다(7-10). 7절: 사람들의 무리들이 쓰러뜨리지 못한다. 모기떼처럼 파리 떼처럼 덮쳐도 쓰러뜨리지 못한다. 출7-12,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 내림, 이집트 사람들은 고통을 다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하다(출9:18-26, 우박 심판, 25-26). 처음난 모든 것 죽음, 이스라엘 안전(12장).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흥해로 그들을 쫓아옴(14장), 모세의 지팡이, 이스라엘 안전, 그들 모두 익사

3. 8-10절은 특히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로 인해 사악한 자들이 보응받는 것(8)

4. 의로운 자들이 보호받는 이유(9), 그 결과 10

그러므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한다.

사람이든 질병이든, 자연 재해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면 견뎌낼 수 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진노 아래로 들어가지 않는다.

5. 그러나 이 말은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고전10:13

즉 어떤 시험이 와도 이기게 해 주신다는 말이다.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이다.

즉 믿는 자들에게도 롬8:35에 있듯이 환난이 닥친다. 그러나 이기는 힘을 주신다.

### 성도들의 안전의 도구(11-13)

역병, 울무, 화살, 군대, 마귀의 영적인 공격, 개인에 대한, 나라에 대한 공격

사람이나 마귀의 어떤 공격도 하나님의 보호망을 뚫지 못한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하신다.

천사들이 우리를 지킨다(11), 천사(히1:14)

심지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12). “저는 걸려넘어졌는데요.”

이 말은 사소한 부분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이다.

지금까지의 보호는 수동적인 보호, 13절은 능동적인 보호 혹은 결과

두려움이 생기면 사람이 수동적이 된다. 선제공격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으로 두려움이 사라지면 적극적으로 선제공격을 하게 된다.

#### 하나님의 약속(14-16)

약속은 약속하는 자의 능력에 달려 있다. “우리는 안전할 거야!” 라고 소망하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에 안전하다. 보석을 사면 보증서, 안전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어려움이 와도 구출한다(14, 15)

벗어나게 하시든, 이기게 하시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사람을 높이 세워 주신다(14).

그리고 그를 존귀하게 하신다(15).

모든 사람 앞에서 구원을 보이신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단3),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사자 굴속의 다니엘(6),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감옥에 갇힌 바울(행23), 폭풍우 속의 바울(행27), 함께 계신다.

심지어 하나님이 장수하는 복도 주신다(16, 신28:1-14). 구약 백성, 믿음과 순종은 종종 장수의 비결

#### 어떤 사람이 이런 보호를 받는가(14)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14), 개인적으로 그분을 아는 자들, 은밀한 데 거하는 자들(1)

하나님이 보는 영역이 있다. 그 영역이 기록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 영역을 보신다.

바로 그런 자들이 위기에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15). 그를 구출해 주신다.

#### 오용하면 안 되는 부분(11-12)

말씀을 오용하면 안 된다. 마4:6-7 마귀의 시험, 시91:11-12 인용, 뛰어내려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신6:16), 안 하심,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구절에 꽂혀서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뛰어내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뛰어내리라고 했으면 하셨을 것이다. 그것은 믿음의 행위

왜 안하셨을까? 뛰어내리면 사람들의 영광,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 고통이

먼저, 약속이 있음에도 뛰어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하면 그것은 억측, 짐짓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사람이 할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우한 폐렴 위생 수칙 잘 지켜야 한다.

무조건 지켜 주는 것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성공하려면 노력하고 공부해야 한다.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보고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

####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안전

이 시편에는 이 땅에 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닥치는 어려움, 하나님이 보호하고 도와주시고 건져주신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영원한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 지옥 불속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 역병에서 벗어나려고 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혹은 먼저 지옥 정죄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슨 유익(마16:26)

벗어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점을 철저히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구원자를 불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유일한 구원자

#### 결론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우리 삶에는 어려움이 닥친다. 고통이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육적 고통, 영적 고통, 그리고 우한 폐렴 같은 재앙이 닥쳐도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

심지어 천사들까지 동원해서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13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사자, 뱀 등은 마귀 상징  
더욱더 용기 있게 힘을 내서 마귀의 일을 부수며 주의 일을 해야 한다. 저항을 받더라도 옳은 것을 해야  
한다. 이것의 비결: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은밀한 삶이 올바라야 한다(1).  
끝으로 다시 한 번 이 국가적 재앙 앞에서 먼저 뜻하지 않게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고생하시는 우리 국민들,  
의료계 종사자, 방역 요원, 경찰, 질병 관리 본부 관계자 등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드린다.  
우리의 인생길 앞날에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